

투데이

“지리산케이블카 놓고 성삼재도로 폐쇄”

구례군 사업계획서 제출...남원·산청·함양도 별도 추진  
환경단체 반대 논란 가열...환경부, 6월 최종 대상지 선정

“케이블카 놓고, 성삼재 관동도로 폐쇄하면 오히려 지리산 환경 보호에 도움된다” “케이블카는 무성한 산림을 훼손하고, 물러드는 사람들로 지리산이 몸살을 앓을 것이다” 구례군이 최근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구례군은 1일 “산동은천지구~노고단 인근 KBS중계소 하단 4.3km 구간에 3년 동안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놓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한 뒤 기존 탐방로와 성삼재 주차장을 폐쇄하고, 국립공원 내 심원마을 이주 등을 통해 9만3000㎡를 생태 복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성삼재 관동도로(관할 지방도 861호선)를 폐쇄하고, 노고단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상부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대체교통수단(케이블카) 없이 무턱대고 성삼재 관동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며 “연간 80만명에 달하는 노고단 탐

방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케이블카만이 지리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지리산 인근 지자체 중 남원시는 반선~중봉(6.6km) 구간, 경남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장터목(5.2km),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망바위(3.4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각각 환경부에 계획을 제출했다. 또 월출산에서는 영암군이 기체육공원~산상대(1.99km) 구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환경부는 3개월 동안 현지 정밀조사와 민간전문위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리산 노고단 등지에서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는 산상 시위에 나섰고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노고단, 세석, 제석봉은 생태계의 보물 같은 곳이다”면서 “4월께 지리산 현장조사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지를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3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버경영안정대책비와 농업 현안에 대한 ‘골조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버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을 기존대로 일선 시·군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제공>

버경영안정대책비 시·군이 재량권 행사

기존 방식으로...전남도·농민 갈등 봉합  
전남도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버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을 기존처럼 일선 시·군이 재량권을 갖고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농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버경영안정대책비(550억원)를 올해부터 50%만 직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버 공동육묘장 등을 세우겠다고 방침을 변경해 농민단체가 도시시설을 접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1일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의 요구대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불하거나, 도의 방침대로 필요한 공동육묘장과 건조장 등을 건설하는 결정권을 기존처럼 일선 자치단체가 갖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도와 농민단체의 갈등은 봉

합했지만, 전남도는 “주요 농업정책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결국엔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버경영안정대책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3ha 미만의 농지에서 버농사를 짓는 12만5000여명의 농민이며, 농가당 30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모금 운동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4월 한 달간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의 이름은 모기장(Net : 그물)을 가리키는 ‘Nets Go! 아프리카’로 정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망원인 1위는 말라리아로 1분에 1명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모기장 사용이 최선의 예방책이지만 가난한 주민에게는 어려움이 크다. 광주시는 유엔재단이 펴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30일 각계각층 인사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 달간 모기장 1만 장을 구입할 수 있는 1억 원을 목표로 모금에 나섰다. 모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며, 역과 터미널 등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모금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모금액은 오는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유엔재단 관계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모기장

보내기 운동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나눔과 연대공동체를 실천한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생명존중과 나눔 실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문의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062-613-2070), 후원회와 광주은행 013-107-373332(예금주 공동모금회광주지회) /홍행기기자 redplane@

“공중보건의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맞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중보건의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였다 고 권익위가 전했다. 김모씨는 민간병원에서 군 북부중 병원이 폐업, 3개월치 급여 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관련 규정미비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10월13일 개막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일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총회를 열고, 올해로 19회째인 김치축제의 일정과 추진방향, 세부추진전략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김치축제 세계화와 광주 김치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9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해외축제제를 열기로 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중외공원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를 비롯해 전시, 학술, 경연, 참여·체험행사 등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축제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김치담그기’ 행사 등에는 외국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거리 장터 참여업체도 호남권 전

역으로 확대,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행사는 ‘발효과학의 백미’로 불리는 김치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김치체험 릴레이, 김치사랑 나무 메세나, 시민김치랑 콘테스트, 김치문화탐사단 운영 등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난다. 해외 홍보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에서 한국전통무용단을 이끄는 유지인(여·33)씨와 해외입양인협회 코디네이터로 활동중인 김윤희(여·35)씨 등 2명을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성훈 축제위원장은 “올해는 미국 해외 행사를 처음으로 여는 등 실질적인 김치세계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망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지역기업들의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박 장관은 글로벌광동신과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돌아본 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중기장관, 지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로 돌아간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본사 인사

▲崔勝烈: 편집국 사회부 광산주재 부장 (4월 2일자)

광주시 공예·디자인 분야 인재 집중 양성

광주지역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민선 5기 공예문화산업육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예디자인분야의 우수인재를 선발해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 지역 공예문화

산업의 창조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는 오는 4월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신청자 중 20여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총 130시간 안팎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기본공통과정 ▲실무교육 ▲실전형 마케팅 역량강화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실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檢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앞서 지난 30일 증거인멸 교사 및 공동물건 손상 교사 혐의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실행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와 뒷선 개입 여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뒷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행정관도 지난 29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제15기 결산공고

Table with 4 columns: 과목명, 금액, 과목명, 금액. It lists various financial items and their amounts for the 15th fiscal year.

알메탈(주)

대표이사 송중근  
제74호 공인회계사감사반 공인회계사 정민화 문정 김형철

Advertisement for '행복한 소리' (Happy Sound) featuring a family and a woman. Text includes '독일보청기' (German hearing aid) and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Advertisement for 'SM 솔로몬신용정보' (SM Solomon Credit Information). Text includes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and Suncheon.

Advertisement for '공무원 대출' (Civil Servant Loan) and '공무원 특별자금' (Civil Servant Special Fund). It lists loan conditions, interest rates, and contact numbers for Woori Bank and Kookmin Bank.